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글 **채종일**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편집위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13년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JP)*는 사람이나 가축에 기생하는 각종 기생충과 그 기생충이 일으키는 질환, 매개체, 숙주-기생충 상호관계, 인수공통기생충질환, 열대의학 등에 관한 학술논문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글과 기사를 싣는 학술지로서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가 발행한다. *KJP*는 완전 영문 학술지로서 글의 형태는 종설(Review 또는 Mini-Review),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연구단보(Brief Communication), 책 소개(Book Review),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등으로 구성된다. 2012년까지는 연 4회 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연 6회 발행할 예정이다.

*KJP*는 1963년 6월에 창간되었으며, 2013년에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첫 제호는 『대한기생충학회잡지』였는데 이듬해(1964년) 『기생충학잡지』로 변경해 1992년까지 28년간 이 국문으로 된 제호를 사용하였다. 학술지의 제호가 지금의 영문 이름으로 바뀌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말까지 국내 의학학술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KJP*는 외국의 우수 대학 도서관 등에 학술지를 배포해왔음에도 논문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말로 씌어 있는 등 여러 불리한 여건 때문에 국제적인 지명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당시 편집진(필자는 당시 편집간사로 실무를 담당)은 우선 *KJP*가 국제화되는 첩경은 미국 국립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발행하는 전 세계 의학논문 색인집 '인덱스 메디쿠스(Index Medicus)' (현재는 PubMed, PubMed-Central, Medline 등 인터넷 색인 사이트도 운영)의 색인 대상 학술지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Index Medicus'와

'PubMed'에 등재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술지 체제를 다듬고 오자, 탈자, 오기 등을 없애고 체제의 통일성을 100퍼센트 갖추도록 기하는 등 2년여의 노력 끝에 NLM으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1990년). *KJP*에 실린 논문이 매우 독특하고(unique), 독창적이며(high originality),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highly significant), 학술지로서의 체제도 우수하여 1989년 발행된 학술지부터 소급하여 'Index Medicus'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KJP* 학술지를 받으면 NLM 도서관의 서가에서 영구 보존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편지에 알려진 내용은 좀 난감한 것이었다. 학술지 제호가 '기생충학잡지'처럼 자국 원어로 되어 있는 경우 NLM의 내규에 따라 'Kisaengchung hakchapchi'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그렇게 표기해서는 *KJP*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논의 끝에 *KJP*를 완전 영문화하기로 결정하고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92년부터 제호를 영어로 하여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로 하고, 내용은 완전 영문화, 그리고 발간 횟수를 연 4회(1988년 기준)로 함으로써 학술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과학 학술지 발행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 이른바 'SCI(Science Citation Index) 열풍'이 불어닥친 것인데, 미국의 톰슨-로이터(Thomson-Reuter)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인 SCI에서는 각 학술지의 피인용도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를 계산하여 매년 발표해왔는데 이것이 논문과 학술지 평가에 거의 절대적인 잣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나 많은 대학, 단체들이 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니면 논문 취급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학자들은 자신의 논문 모두를 외국 SCI 학술지에 투고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 학술지들은 외국 SCI 학술지로부터 게재 거부를 당한 일부 논문 투고를 받아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KJP*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 30~40편 정도를 유지하던 게재 논문 수는 2003년에 이르러 연간 18편으로 격감하였고, 2005년까지 연 20편(호당 논문 5편 정도)을 겨우 넘는 정도의 매우 얇은 학술지로 발간되기에 이르고 말았다. 많은 회원들은 *KJP*가 곧 고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2006년에 *KJP*의 신임 편집위원장이 되면서 새로운 편집진을 구성하고 우선 자신들의 우수한 논문부터 희생적(?)으로 *KJP*에 신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JP*가 SCI에 등재되는 것만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하였다.

표지를 바꾸고 체제를 다시 정비하면서 우수한 논문을 신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KJP*를 더욱 널리 알리고 피인용 횟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무료)가 아니면 논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어렵고 인용도 잘 안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PubMed, SCI, Google, KoreaMe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곧바로 *KJP*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또한 PubMed-Central에서 더욱 쉽게 검색되도록 키워드(key word) 색인 수를 늘이고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2007년 드디어 Thomson-Reuter사로부터 2008년 발행 논문부터

*KJP*를 SCI(E)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게 되었다.

*KJP*의 첫 SCI impact factor(2010)는 2011년에 발표되었다. 2010년 이전의 2년간(2008년 및 2009년)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그 다음 해 1년간(2010년) 인용된 총 피인용 횟수를 총 게재논문 수로 나누어 계산한 첫 impact factor는 0.987이었다. 처음 얻은 impact factor로는 낮지 않은 수치로 생각하고 계속 좋은 논문을 신도록 노력하였는데 결국 1년 후인 2011년의 impact factor는 1.042로 마(魔)의 1.0 벽을 넘게 되었다. 학술지 창간 50년 만에 이룬 성과로 생각하여 지난 2012년 10월 25일 열린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에서는 ‘*KJP*의 SCI impact factor 1.0 돌파 기념식’을 조촐히 가졌다.

영향력 지수 2.0 이상, 연간 12회 발행을 꿈꾸며

*KJP*를 발행하는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KSPSTM,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는 1959년 1월 15일 ‘대한기생충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여기에는 기생충 질환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한 의학자, 예방의학자 및 보건행정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1일에 제1회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렇게 시작된 학회는 1963년 기관지(현 *KJP*)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고, 금년(2012년도) 10월 25~26일 제5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름을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로 바꾸게 되었다. 회원의 구성은 일반회원, 평의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총무부, 학술부, 사업부, 국제협력부, 감사를 집행부로 두고, 편

집위원회, 교육위원회, 학술상위원회, 학술용어위원회, 기금위원회, 정보위원회, 기록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KJP*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KJP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편집인) 1명, 부편집인 6명, 편집간사 1명에 편집위원 24명(국내 17명, 국외 7명)을 두고 있으며, 상호 심의자(peer reviewer)는 국내 200명, 외국 200명 등 약 400명을 확보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연간 약 180편의 논문이 투고되고 있으며 이 중 40퍼센트 정도가 최종 게재에 이른다(acceptance rate, 40%). 투고논문 저자의 국적은 한국이 50퍼센트, 이란, 타이, 중국, 타이완, 이집트, 일본, 영국, 덴마크,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이 50퍼센트를 차지하며, 게재논문 저자의 국적은 한국이 60퍼센트, 외국이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는 Thomson-Reuter사의 자매 회사 스콜라원(ScholarOn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mc.manuscriptcentral.com/kjp>)를 이용한다. 인쇄 및 배포는 아카데미아(Academya)사가 담당한다. 학회재정의 상당 부분은 *KJP* 편집 및 발간에 사용되는데 과총이나 한국연구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도 *KJP* 발간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KJP*의 향후 궁극적인 목표는 SCI impact factor가 2.0 이상인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 12회 발행하는 정기학술지가 되면 좋겠다. 또한, 국내 논문 30~40퍼센트, 국외 논문 60~70퍼센트 정도가 게재되는 명실 공히 국제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를 희망한다. 